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믿음, 일치를 향한 모험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2주 주일 】

인도 : 김재홍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경배의 찬송	10.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연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국민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 어려움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 해결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주님, 병든 이와 치료의 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정의의 주님, 위기를 틈타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과 이득을 보기 위해 불안을 확대하려는 자들을 모두 벌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주님, 이 사회가 속히 일상의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위로의 말씀	사 49:13b~15	인도자
교 독 문	125. 사순절(2)	다 함께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찬 양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성경봉독	사 8:5-10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찬 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목회실
-----------	------------------	-----

말 씬 이 땅을 보호하소서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 함께
 찬 양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 함께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평화의 인사 다 함께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지향을 바르게 하
 고 사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욕망의 길이 아니
 라 하나님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른길을 가는 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왔는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제부터라도 지향을 바르게 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으며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미정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헌금영수기 -

권 산 김수경 김수희 김연정 김영희 김유석 이범석 임기산 장승희 홍춘숙 황소영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청파교회 주일 오전 2부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교회소식

1. 예배 안내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교회 집회를 쉽니다. 주일 낮 11시 예배는 영상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 헌금 안내 : 헌금은 이번 사태가 진정된 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해구호헌금은 새마을금고 9002-1689-6414-8 (예금주 :청과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앙실천 : 마스크를 이미 여유롭게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이가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구매를 다음으로 미루어도 좋겠습니다.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길 잃은 날의 지혜

박노해

큰 것을 잃어 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피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피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닳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옳음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